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조영*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저는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필리핀 마닐라 대학 부속 어학원 Times-SLC 에서 어학공부를 하였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 학생회관정도의 크기에서 여러 강의실이 있으며 앞에 수영장과 식당이 있습니다. 3인 1실을 쓰며 에어컨은 항상 틀어져 있어 더울 겨를 없이 시원하였습니다. 분위기는 빠듯한 수업 일정으로 수업을 듣기 바쁘며 선생님들이 착하시며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08시~17시 총 8교시 수업을 합니다. 1on1 수업 4개 Group 수업 4개를 하게 되는데 Group 수업은 처음 시험 테스트를 보아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테스트가 어느 정도 중요하니 열심히 풀면 좋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착하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과제는 30분 정도면 다 풀고도 남을 정도로 내주십니다. 수업은 선생님들 마다 다르신데 보통 어학원에서 준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 수업으로 1.고아원 방문 2.요트 타기 3.마닐라 대학 방문을 하였습니다. 딱히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준비물은 요트 때 수영복과 선크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아원과 마닐라 대학 방문 때는 한국에서 몇 개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다보니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닐라 대학 방문 때 그쪽 대학생과 1대1로 같이 다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선물을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주의점</p> <p>현지 기후는 대체로 더우며 우기라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항시 우산을 준비하고 가면 좋습니다. 수업도중에는 항시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 추위 타시는 분들은 겉에 걸칠 외투나 긴 추리닝을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현지 안전은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한국 만큼의 치안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곳에서 딱히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히 다녔습니다. 오히려 한류열풍 때문에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정된 곳에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지정된 곳만 돌아다녀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곳을 벗어나 놀았던 학우 친구들은 조금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 시설은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저는 추위를 잘타고 룸메들이 더위를 타 자는 도중에 감기를 몇 번 걸렸습니다. 저처럼 추위 타시는 분들은 꼭 외투 챙겨가세요. 분위기는 좋았으며 규칙은 금,토요일 빼고 항시 10시 이전에 들어와야한다는 것 빼곤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아침엔 빵을 먹었으며 식사에 있어 불만 없이 잘 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밖으로 외출 때 처음엔 길을 잘몰라 택시 150페소를 내고 탔지만 며칠 지나고 FBI를 타고 13페소에 시내를 돌아 다녔습니다. 올 때는 항상 택시 120페소를 내며 숙소로 돌아 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휴대폰 유심	8800	
외식 및 마사지	400,000	
스킨 스쿠버	60,000	
영화 및 게임	2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딱히 파견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출국 전 국제교육교류처 선생님들이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의미있는 물건을 미리 사두고 나중에 졸업식 때 선생님들에게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지 물가가 한국에 비해 2~3배 싸기 때문에 처음엔 이것저것 막 사지만 나중에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해두고 하루에 몇 페소씩 쓸 것인지 그리고 선물로 얼마 정도를 쓸것인지 계산 해두고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우선 저는 체육대학 학생으로 영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을 위해 영어를 잘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자 신청하여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맨 처음 보았던 테스트에서 29명 중 26등을 하였습니다. 듣기도 안들렸고 스피킹테스트에서도 제가 무슨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는 단어를 뱉었습니다. 그리하여 맨 밑 바닥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곳 선생님들도 제가 아는 대로 말을 뱉으니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서 말을 하게끔 유도하였고 또 수정해주셨습니다. 자꾸 틀리는 거 같아 죄송하였지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엔 전에 하였던 수업중에 모르던 단어를 한 곳에 적어놓아 외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듣기도 어느정도 들리고 완벽한 영어 회화를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는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테스트에선 29명중에 10등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너무 대견 하였고 자신감 또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에 여러 학과가 오다보니 여러모로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공부를 여

태 잘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척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신감으로 글로벌 빌리지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외국인과 가까이 지내 몇 마디라도 더 해야 저의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입 밖으로 쓰게 되면 장시간 기억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영어가 필수인 분들은 꼭 필리핀 어학연수를 신청하면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할뿐더러 자신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졸업식 단체 사진입니다.



클락 공항 출국 전 마지막 단체 사진입니다.



1 on 1 teacher Ronald와 찍은 사진입니다.



스킨 스쿠버 하기 전 배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드벤처(놀이공원) 사진입니다.



요트 타기 전 풍경이 너무 좋아 찍은 사진입니다.